

# 오랜 열정으로 꿈에 한걸음 가까이

### 용북중 박여범 교사, 계간 문학교을 '시' 부문 신인상 당선

지역 문단에서 활발하게 활동해 온 박여범(문학박사) 작가가 최근 문학교지에 신인상 수상의 영예를 안고 시인으로 등단했다. 지난 11일 밝혔다.

용북중학교 국어교사로 재직 중인 박 여범은 '계간 문학교을' 제8회 신인상 시부문 공모전에서, '가을의 회상', '오늘을 걷는다'라는 시가 신인상에 당선되어 시인으로 등단했다.

심사위원(한상현 조현민 양경숙)들은 "오랫동안 문학인의 꿈을 간직하시고 열정적으로



노력하신 선생님께서, 꿈에 한 발자국 더딜 수 있게 된 점에 힘찬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이제 박 시인과 '창작'의 위대한 길에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하고, 시인의 길에 험난하고 굴곡진 길도 피하지 않고 새로움으로 자신을 밀고 가는 시의 힘과 심상한 사유가 충분하다"고 평했다.

박여범 교사는 "평론가로 수필가로 편협하고 어설픈 글쓰기로 일관하던 내 자신이 시를 통해 새로운 세상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늘 사랑으로 함께하며 부족한 글을 읽어 주고 시를 쓰게 만들어 준 용북중학교 학생들과의 이야기로 당선 소감과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저서로는 '시골학교, 최고의 아이들'(문경출판사) 2016, '글쓰기의 이론과 실제'(한국문화사) 2000, '한국민속과 전통예술'(문경출판사) 2000, '논문작성의 이론과 실제'(학지사) 2001, '독서로 행복해지는 한 권의 책'(부크크) 2019 등이 있다.

신문 및 인터넷 연재로는 (사)전국독서새물결모임 '아침독서편지' 집필, 전북타임스신문 '박여범의 문화산책'이 있다. 현재 전주매일신문 박여범의 '소소한 일상'을 연재 중이다.

박 시인은 2000년 '월간 문학세계' 평론부문에 신인상(문학평론가), 2015년 '계간 글의 세계' 수필부문에 신인상(수필가)을 수상하여 등단하였으며, 전북대, 군산대, 중부대, 광주대, 서남대, 한국방송대 국어국문학과 디터, 강사, 현재 남원문인협회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 정읍시, '장애인과 함께하는 열린음악회' 성황리 마쳐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들(대표 문성하)이 주관하고 정읍시가 후원한 '제16회 장애인과 함께하는 열린음악회'가 지난 12일 천현 어린이 축구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평소 문화 활동에 참여가 다소 어려운 장애인 문화예술인에게 꿈과 재능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문화의 장을 제공하고자 준

비했다. 이날 행사에는 유진섭 시장·시설단체장·시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음악회에 열린 호응을 보내며 화합의 장을 즐겼다.

이날 음악회는 ▲클론(강원대) ▲바퀴달린 성악가 이남현 ▲전자 바이올리니스트 강명진 ▲퓨전 난타팀 W&W ▲인디밴드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들 등이 아름다운 음악 공연을 선보였다.

문성하 대표는 "아름다운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며 "이번 음악회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소통하고 하나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진섭 시장은 "오늘 음악회를 통해 모든 분이 꿈과 희망의 의지를 더욱 다지는 기회가 됐길 바란다"고 밝혔다.

## 전주영상위원회, 다큐멘터리 기획개발 사업 공고

사단법인 전주영상위원회(이하 전주영상위)는 지역 소재 발굴 및 지역 콘텐츠 스토리텔링을 목표로 하는 창작자 육성을 위한 '2019 전주영상위원회 다큐멘터리 기획개발 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2019 전주영상위원회 다큐멘터리 기획개발 지원' 사업은 전주 및 전라북도의 인물, 지역, 지리, 역사, 문화, 음식 등 다양한 소재를 바탕으로 방송용 및 극장개봉, 웹 콘텐츠 등의 장편 다큐멘터리 콘텐츠의 기획·개발비를 지원

한다. 전국의 다큐멘터리 연출자를 대상으로, 총 2,100만원의 제작지원금을 4개 내외의 프로젝트에 지원할 예정이다.

접수는 오는 18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접수할 희망하는 다큐멘터리 연출자는 전주영상위 홈페이지(www.jfcr.or.kr)에서 지원서를 다운 받아 작성한 후 전주영상위 이메일(jfcr@naver.com)로 접수하면 된다.

## 체험중심지 전주한옥마을서 다채로운 공예체험 '만끽'

전주시가 전주한옥마을을 중심으로 한 체험도시 만들기에 나선 가운데 다채로운 공예·체험프로그램을 만끽할 수 있는 행사가 열렸다.

시는 전주한옥마을 체험·공예공방들의 모임인 '전주한옥마을 별별체험단'이 지난 11일 전주전통문화연수원 마당에서 한옥마을 체험·공예공방 홍보를 위한 '제2회 전주한옥마을 별별체험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주한옥마을 내 26개 체험·공예공방이 참여하는 별별체험단은 한옥마을의 정체성에 맞는 수공예의 멋과 즐거움을 알리고 공방들의 네트워크와 활성화를 위해 지난 1월 출범했다.

이번 별별체험 한마당 행사에는 △한지 소품 만들기 △부채 꾸미기 △천연염색 △가죽공예 △소품 만들기 등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과 이색체험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 전북교육문화회관, 가족 뮤지컬 무민 공연 큰 호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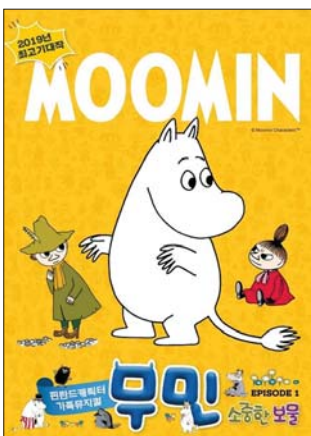
전북도교육청 소속 교육문화회관과 도서관(18개 기관)이 주최하는 '제13회 도서관 문화축전'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가족 뮤지컬 무민(Moomin) 공연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공연은 12일 전라북도교육문화회관 공연장에서 14시와 17시 2회 차로 진행됐다.

이번 무민(Moomin)공연은 동화 속 무민 캐릭터와 음악으로 전달되는 가족 뮤지컬 공연으로 하얗고 포동포동하며 주둥이가 커서 하미를 닮은 트롤 무민이 핀란드에 있는 무민의 골짜기에 살면서 동화 속 친구들과 함께 많은 모험을 하는 내용이다.

무민(Moomin)공연과 더불어 전주역 사바물관 이동희 관장의 '알고 보면 재미있는 조선왕조실록!' 강연이 13일 15시 회관 2층 교육4실에서 열렸다.

조선왕조실록을 지켜낸 전주사고와 무주 적상산 사고에 대한 내용으로 이



워진 강연은 도민들의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문의: 전라북도교육문화회관 독서교육과 063-270-1692) /장은성 기자

## 우리나라 제사 의미 탐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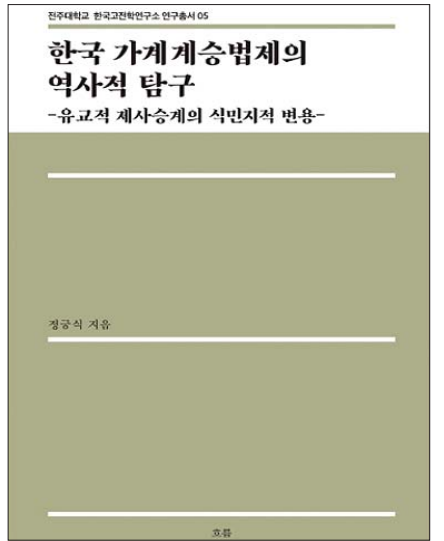
전주대, 연구총서 '한국 가계계승법제의 역사적 탐구' 발간

지역사 연구의 중심이 되고 있는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가 지난 11일, 연구총서 '한국 가계계승법제의 역사적 탐구: 유교적 제사승계의 식민지적 변용'을 발간했다.

이번 '한국 가계계승법제의 역사적 탐구'는 전주대 HK+연구단 공동연구원 정공식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연구 결과로 한국고전학연구소의 다섯 번째 연구총서이다.

이 책은 정공식 교수가 지난 20년 동안 연구해온 논문집을 모은 것으로 호주제의 역사를 주제로 한다. 정 교수는 삶을 지배하고 있는 '전통의 중압', 그중에서도 제사의 의미를 탐구했다. 그 출발은 제사의 시작인 상례에서의 행위규제였으며, '조선 초기 제사승계법제'로 이어졌다. 이후 조선시대에서 근대, 현대의 제사승계법제까지 연구하며, 이번 저서를 통해 조선시대, 근현대를 아우르는 삼부작의 종착점을 찍었다.

책은 서장과 결합 그리고 4부로 이루어졌다. 제1부 '역사적 연원'에서는 거시적 시야에서 우리의 가계계승-제사승계-법제를 다루었다. 근현대 호주제의 역사성을 이해하기 위한 총론으로 이를 통해 가계계승법제의 변천과 그 역사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제2부 '가계계승'에서는 변례(變禮)인 양자(養子)가 양가(養家)와 생가를 함께 계승하는 '생양자(生養子)' 호주제의 큰 흐름을 기술하



고, 또 직접 관련이 있는 종중(宗中)의 성격을 분석했다.

제3부 '제사와 재산의 승계'에서는 제사승계와 관련된 재산분쟁을 검토한 글을 모았다. 제4부 '여성의 지위'에서는 조선 후기부터 식민지기까지 여성의 호주제 실상과 식민지의 변천 그리고 배우자의 대습상속을 다룬 글로 묶었다.

한편,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는 2016년부터 연구총서를 발행해 왔으며, 그동안 '근현대 지역공동체 변화와 유교 이데올로기-사상·종교(I·II)', '근현대 지역공동체 변화와 유교 이데올로기-지역공동체 재편(I·II)'을 연구총서로 발간해 왔다.



국립국악원이 오는 18일 예음헌에서 '국악 제작의 발전방향 모색'을 주제로 제5회 대한민국 민속악 포럼을 무료로 개최한다.

## 국립민속국악원, 제5회 대한민국 민속악 포럼 개최

국립국악원은 오는 18일 예음헌에서 '국악 제작의 발전방향 모색'을 주제로 제5회 대한민국 민속악 포럼을 무료로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통용어 중 민속악의 쟁점 사항에 대한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발전 방향과 해법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로, 2015년에는 국악극 제작의 흐름,

2016년에는 창극의 전반적인 문제점, 2017년은 창극제작 현장, 2018년은 작창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번 포럼에서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문화콘텐츠로서 창극(국악극)이 대중과 소통하고 살아남기 위한 과제 가운데 하나인 무대제작의 주요쟁점(공연 양식, 무대연출)을 중심으로 토론을 펼친다.

이날 '대한민국 민속악 포럼' 진행에는 국악평론가 환경재씨가 나서며, 이진주(서울대학교 국사학과 강사)의 창극의 문화산업적 욕망과 그 너머, 남인우(극단 북새통 예술감독)의 창극 창작활성화를 위한 제작시스템 및 제작 방향, 공병훈(협성대학교 교수)의 4차 산업혁명과 전통예술의 결합을 참가자들의 편의를 위해 포럼 당일 오전 9시 서울 서초동 국립국악원에서 출발하는 버스를 운영한다.

/남원=김기두기자

축! 전주매일 창간

# 열린의회, 알찬의정

## 제8대 순창군의의회

군민과 함께하는 제8대 의회가 되겠습니다.

**천년의장맛! 백년의미소!**

### 제14회 순창장류축제

- 10.18.(금) ~ 10.20.(일) - 3일간

▶ 개막식 : 10.18.(금), 18:00

- 순창전통고추장민속마을 일원

- 의정상담센터 운영

## 순창군의의회

56039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 경천로 33

☎ 063)650-1021, 1043 fax)063)652-6782

<http://www.sunchangcouncil.go.kr>